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 역시 명품쌀 전국 RPC 대표브랜드 1위

농협중앙회가 전국 170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RPC 대표브랜드 살 평가'에서 전남 해남 옥천농협(조합 윤경하) RPC의 '한눈에 반한 쌀'이 1위에 올랐다.

기토산·목조액 등을 이용해 진환경농법으로 재배한 '한눈에 반한 쌀'은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우수브

랜드 가운데 2003~2007년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러브미(LOVE米)' 인증을 받기도 했다.

2위는 경기 평택 송탄농협 RPC의 '슈퍼오닝'(평택시 공동브랜드)이 차지했고, 경기 김포 신김포농협 RPC의 '김포금쌀'(김포시 공동브

랜드), 인천 강화 교동농협 RPC의 '강화추청쌀', 전북 김제 공덕농협 RPC의 '상상예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대상은 연간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각 RPC가 고 품질 쌀로 집중 육성한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또 평가시료도 대도시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쌀을 구

입해 사용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RPC에 대해 수확기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직원 특진 평가항목 반영, 품질분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어업생산 크게 늘었다

전복 등 양식 호조로 상반기 74만t 생산... 전국의 51% 차지

고유가 여파 원양어업 어획은 크게 줄어

올 상반기 양식작황 호조로 전남의 어업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두자릿 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 들어 국내 원양어업 및 연·근해어업 생산은 크게 감소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8 상반기 어업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의 어업생산은 73만8천383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6만2천629t)에 비해 11.4%(7만5천754t) 늘어난 것으로, 전국 시·도 어업생산(원양어업 등 제외)의 5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어업생산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3년 43.3%에서 2004년 47.3%, 2006년 50.1%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남어업의 생산 증가는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전복, 바지락 등 패류의

양식작황이 매년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상반기에 전남의 양식 비중이 높은 김과 전복 등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상반기 전국의 미역 생산량은 35만9천75t으로 1년 전보다 25.0% 증가했다.

또 김과 전복도 상반기 생산이 각각 17만4천181t, 2천156t으로 1년새 각각 20.4%, 8.7% 늘었다.

하지만 유가급등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어업생산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은 182만

9천t으로, 1년 전보다 1.0%(1만9천t)

등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어종별로는 갈치가 1년 전보다 48.1% 더 잡혔으며, 청어(28.6%)와 꽃게(125.5%) 등의 어획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고등어와 대개의 수확량이 각각 40.5%, 34.3% 감감함에 따라 전체 생산량은 0.9% 줄었다.

양식어업은 송어·놓어 등의 생산증가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다만 굴과 바지락은 태안사고의 여파로 생산량이 23.3%나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中企 경쟁력 살리기

市, 10개 업체 선정 경영 혁신·신제품 개발 지원

광주시가 전문가 집단의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08 경영·기술력 향상 지도사업' 대상기관으로 산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등에 걸쳐 모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도사업 대상 기업은 대호 스프링, 동서산업, 성우 복층유리, 남부 산업, 도시환경 이엔지, 무등, 신진정밀, 아원엑스, 알고코리아, 휴먼라이트 등이다.

지도사업 대상 기업은 대호 스프링,

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문경영 컨설턴트는 해당 기업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기업진단, 경영 효율화·기술력 향상 방안을 지도한다.

지도부문은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등 전문기술 ▲경영혁신▲그마(품질관리 선진기법), TPM(생산설비 효율화 기법)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부문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기자 penfoot@

"카드 결제 환영합니다"

광주 각화 농수산물시장 서비스 크게 개선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최초로 신용카드를 도입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제 2의 도약에 나선다.

각화동 농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회장 나인재)는 최근 비씨카드(광주지점장 김종기)와 가맹점 제휴를 맺고 오는 14일부터 시장내 중도매상과 소도매상, 일반 소비자간 농산물 거래에 비씨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도매상은

물론 일반소비자들도 신용카드

를 이용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

어 그간 현금거래만 해오던 불편을 덜게 됐으며, 각종 세제와 부가서비스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쪽은 제휴카드 발급을 주

진하고 있어 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중도매상은 어음 또는 수표 수납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위험을 막고, 현금소지에 따른 분실방지와 외상매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씨카드는 2.65%에 달하는 일반 수수료를는 달리 0.85% 인하된 1.80%의 수수료만 부과해 기업 중도매상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나 회장은 "또 난립해있는 채

소매장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냉장시설을

추가로 확보, 고품질의 신선한 상

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호남

지역 최대의 공영시장으로 만들

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결제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을 줘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택을 제공받은 만큼 이용금액의 일정률을 복지기금으로 적립,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등 380여명의 회원들을 위해 유동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기념해 양쪽은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비씨카드 결제 고객대상 경품이벤트'를 마련, 푸짐한 상품을 증정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연합회는 체계적인 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재 연간 2천7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오는 2010년까지 4천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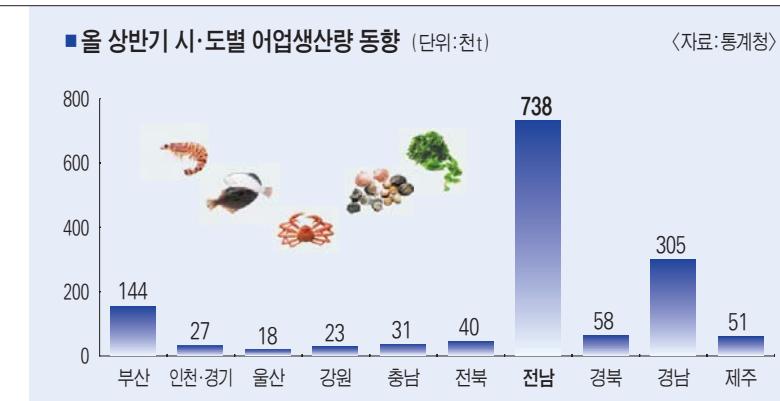
이를 위해 현재 380여명에 불과한 주차공간을 확충, 주차타워를 설립해 1천면까지 늘릴 방침이다. 주차타워 설립은 정부승인을 마쳐 예산배정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나 회장은 "또 난립해있는 채 소매장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냉장시설을 추가로 확보, 고품질의 신선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호남 지역 최대의 공영시장으로 만들 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8월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는 호러 퍼포먼스 스와 포토 서비스를 10일 선보였다. 마녀·몽달귀신·스크림·드라큘라 등 캐릭터로 분장한 직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사탕과 미니물총 등을 나눠줘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롯데광주점 제공>



광주 中企 경쟁력 살리기

市, 10개 업체 선정 경영 혁신·신제품 개발 지원

광주시가 전문가 집단의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08 경영·기술력 향상 지도사업' 대상기관으로 산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등에 걸쳐 모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도사업 대상 기업은 대호 스프링, 동서산업, 성우 복층유리, 남부 산업, 도시환경 이엔지, 무등, 신진정밀, 아원엑스, 알고코리아, 휴먼라이트 등이다.

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문경영 컨설턴트는 해당 기업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기업진단, 경영 효율화·기술력 향상 방안을 지도한다.

지도부문은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등 전문기술 ▲경영혁신▲그마(품질관리 선진기법), TPM(생산설비 효율화 기법)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부문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기자 penfoot@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참여업체 모집

중소기업청은 오는 26일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에 대해 중소기업 청이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를 접수해 모두 163개 과제를 제택했다. 중소기업이 이를 과제를 수행한다고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 이를 중소기업에 2년간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